

송강의 시에 나타난 표현론적 세계

박배식*

<차례>
1. 서언
2. 표현론적 시 세계의 배경
3. 대립과 갈등의 극복
4. 체념의 승화
5. 결어

1. 서언

문학은 사회 제도의 하나이며 그 매개 수단으로서 사회가 만든 언어를 사용한다. 상징법과 운율과 같은 따위의 전통적인 문학상의 意匠도 그 본질 자체부터가 사회적이며, 인간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습관과 규범의 소산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규범 중시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문학의 내면적 본질은 역시 사회적 현실로서의 인생을 모방하는 것이며, 문화의 일부로서 사회적인 연관을 가지고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다.¹⁾

이렇게 볼 때 문학의 내면적 본질은 표현되는 대상에 대한 작가의 사회적 인식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표현하는 수단인 언어는 내면적 본질의 형성과는 무관한 것임도 알 수 있다. 한 작가가 작품의 창작에 임할 때 표현과 전달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어떤 장르와 문자를 선택할 것인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것이 달라진다고 하여 창작의 기본적 의도와 목적, 또는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 등도 함께 변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송강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가 비록 서로 다른 詩形式과 문자를 사용하여 작품을 창작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지녔던 문학관을 토대로 창작에 임했던 자세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한시 속에서 발견되는 정서는 시조·가사에서도 역시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송강의 견지했던 문학관의 일단은 당시 사대부들의 지배적인 문학관이었던 재도론에 입각한 효용론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전형적인 사대부의 신분으로 관료사회에서 활동했던 송강의 문학관 역시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송강의 권력 지향적 속성과 결부된 연군, 훈민, 시속 교하 등의 형태로 송강 문학 전반을 관통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학관으로 포출된다.

이렇게 공리적 효용성을 표방하면서도 천성적으로 타고난 문학가로서의 일면을 지닌 송강의 작품에는 개인적인 정서 표현을 바탕으로 하는 표현론적 시정신도 잘 드러나고 있는 바, 이 또한 송강이 추구했던 또 다른 문학관의 일면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문학관의 바탕 위에서 때론 개인의 권력 지향적 속성의 발산지로, 때론 개인의 성정의 표현 의지로 특정한 시 형식에 관계없이 다채롭게 구현된 송강의 시세계를 동일한 정서와 문학관의 기반 위에서 살피는 것을 연구의 방법으로 삼고자 한다.

* 동신대학교

1) R. Wellek and A. Warren, 김병철 역, 『문학의 이론』, 을유문화사, 1998, 139쪽.

2. 표현론적 시 세계의 배경

철저한 奉儒守官의 가치관 아래 효용성을 앞세운 제도적 문학관이 양반 사대부 계층의 주된 문학관으로 자리 잡고 있던 당시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송강은 이를 극복하고 개인적 性情의 표현을 위주로 하여 문학성이 뛰어난 표현론적 시세계 구축했던 바, 이는 송강이 추구했던 문학관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준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표현론적 시세계란 사회적 공리성 추구를 목적으로 전개된 효용론적 문학관에 대응되는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 우리 문화의 모범적 규범이었던 중국의 문학사에 있어서 표현론의 문학관은 '詩言志'의 사상에 근거하여 전개되었다.

詩는 心情의 지향을 말로 나타내고, 歌는 말을 길게 늘여서 읊조리며, 성조는 읊조림에 따르고, 음률은 성조로 조화를 이룬다.²⁾

시는 곧 인간의 마음인 心情의 지향을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한 이 말은 중국 문학론의 출발 단계에서부터 표현론의 기본적인 전거로 이용되다가 『시경』의 大序에 이르러 더욱 확고한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시라는 것은 심정이 지향하여 가는 것이다. 심정에 있으면志가 되고, 말로 나타내면 시가 된다. 정이 마음속에서 움직일 때 시인은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말로 부족하면 차탄하고, 차탄해도 부족하면 그것을 길게 노래한다. 노래도 부족하면 어느덧 손으로 말로 춤추게 된다.³⁾

그러나 표현론적 입장에서 인간의 심정이나 개성이라는 정서적 의미로 해석되던 '시언지'의 의미가 心意의 지향, 의지, 이상이라는 도덕적 의미를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되기에 이르자⁴⁾ 오히려 시언지는 효용론적 성격을 더 강하게 띠는 쪽으로 변모되어 효용론에 입각한 사대부들의 문학론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曹丕가 제시한 다음과 같은 문학론이 오히려 표현론에 더욱 근접해 있는 주장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문학에서는 氣를 중요하게 여긴다. 기의 情과 獨은 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음악을 가지고 한 예를 든다면, 곡조가 비록 고르고 박자가 비슷하게 조절되더라도, 숨(氣)을 쉬는 것이 고르지 않다든가, 교묘하게 쉬든가, 함부로 쉬는 것은 천성으로 나타난 것이므로 아 버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아들에게 넘겨줄 수 없으며, 형이라도 동생에게 넘겨줄 수 없다.⁵⁾

이는 문학의 중심이 기에 있다고 한 것인데, 여기서의 기는 맹자의 '浩然之氣'에서 말하는 기, 혹은 管子의 '만물에 생명을 주는 힘'으로서의 기가 아닌 개성의 向發의 表現을 뜻하는 것으로서⁶⁾ 문학은 개성의 표현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문학에 있어서 기를 중심으로 한 개성의 표현을 중시하는 조비의 견해는 우리나라의 고전시학에도 그대로 수용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시는 마음에서 우리나라로 氣로 채워진 것이다. 古人이 이르기를, 그 시를 읽어보면 가히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 믿을만하다.⁷⁾

2) 詩言志 歌永言 聲依永 律和聲 (『書經』舜典)

3) 詩者志之所之也 在心爲志 發言爲詩 情動於中而形於言 言之不足 故嗟歎之 嗟歎之不足 故永歌之 永歌之不足 不知手之不足 足之蹈之也 (『詩經』, 大序)

4) 유약우, 이장우역, 『중국시학』, 동화출판공사, 1984, 104쪽.

5) 文以氣爲主 氣之情獨有體 不可力强而致 譬諸音樂 曲度雖均 節奏同檢 至於引氣不齊 巧拙有素 雖在父兄 不能以移子弟 (典論)

6) 홍문표, 『현대시학』, 형설출판사, 1995, 51쪽.

7) 詩者 心之發氣之充 古人以誦讀其詩 可以知其人 信哉 (東人詩話 卷下)

서거정이 「동인시화」에서 말한 이 주장 역시 시는 사람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개성의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천성적으로 타고난 성정으로서의 개성조차 인간의 철학적·윤리적 태도로서 갖추어야 할, 그리고 잘 다듬어진 성품으로 보는 견해 앞에서는 표현론적 문학관은 그 설자리를 잃고 만다. 진정한 개성의 표현에 입각한 표현론적 문학관은 문학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억압적 현실로부터 벗어난 작가가 자아의 발견을 통한 내면적 개성의 표현에 주력할 때에만 비로소 그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학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이데올로기나, 자체에서 추구하는 목적성으로부터 벗어나야만 비로소 개인의 성정을 표현 대상으로 삼는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송강이 자신의 문학적 탐구 대상을 개인적 성정에 두고 표현론적 시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 이 또한 송강 자신이 권력에 대한 집착을 감추고, 목적성을 지향하던 문학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문학은 창작의 동기에 관계없이 어느 경우에도 나름대로의 목적을 수행하기 때문에 표현론과 효용론은 구분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詩言志’를 전거로 비롯된 동양적 표현론은 도덕적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면서 효용론과 혼동되는 경우를 보이기 때문에 ‘시는 작가의 내면적 심리의 외적 표현’이라는 서양의 표현론과도 거리가 있다. 이 말은 곧 표현론과 효용론의 한계가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송강의 표현론적 시세계는 주로 그가 관직을 떠나 낙향해 있던 先意의 시기에 구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송강의 자발적 의도에서 비롯된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어진 현실을 거부하고 강하게 대립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송강은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뜻을 굽혀 승복하는 자세를 보이다가 종래에는 그 체념을 승화시킴으로써 비로소 표현론에 입

각한 성숙한 시세계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대립과 갈등의 극복

송강은 이미 소년기의 경험으로부터 정치적 좌절과 그로 인한 권력 내부로부터의 소외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겪게 된 가문의 몰락, 수학기에 인연을 맺은 스승들의 좌절의 고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송강은 그리하여 왕의 신임을 얻어 권력의 내부에 머물고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던 것이다. 문벌의 후광이 크게 작용했던 조선의 시대적 분위기에서 역모에 연루되었던 가문의 출신으로 특별한 정치적 배경을 가지지 못한 송강이 급기야는三相의 자리에까지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송강이 얼마나 권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고군분투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송강은 점점 가열되어가는 당쟁의 와중에서 자기실현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고 진퇴를 거듭하며 많은 시련과 갈등을 겪게 되었다.

남달리 뜨거운 정치적 열망과 권력에 집착하는 성향을 지녔던 송강에게 왕의 청선을 입지 못하고 정치적 현실로부터 소외되었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절망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현실을 수용할 수 없었다. 여기에서 송강의 현실에 대한 대립과 갈등이 시작된다.

望漢樓上漢江遠	망한루 위에서 본 한강물 아득만 하니
漢客思歸歸幾時	한양 나그네는 언제나 돌아가리
邊心寄與柳亭水	변방의 마음 신고 가는 柳亭의 물은
西入海門無盡期	기약도 없이 서해로 흘러만 가네 ⁸⁾

8) (望漢樓, 續集 卷一)

입을 향한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한 강물은 그저 덧없이 흘러만 가니 '쇼양강 느린 물이 어드러로 든단말고'의 애상은 '출하리 한강의 목역의 다히고져(관동별곡)'의 비원으로 간구된다. 비록 몸은 버림을 받았지만 냉혹한 현실에 안주할 수 없었던 마음만은 끝없이 임 계신 한양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流水峽中出 산골짜기에서 솟아나 흐르는 물은
迢迢何所之 어디로 아스라이 흘러가는가
漸能達江漢 네가 능히 한양에 이른다면은
吾欲寄幽思 님그린 내마음 부치고지고⁹⁾

그리하여 비록 몸은 돌아갈 수 없지만 마음만이라도 흐르는 강물에 띄워 입에게 보내고자 하는 애절한 바람을 가져보지만 이러한 염원은 끝내 '먹음의 띠쳐이서 골슈의 썬터시니 편작이 열히오다 이 병을 엷디흐리(사미인곡)'와 같이 누구도 손을 쓰기 어려운 마음의 병이 되고 말았다.

이 몸 허러내어 낸물에 띄오고져
이 물이 우러 네여 한강 여을 되다 흐면
그제야 님 그린 내 병이 헐헐 법도 잇느니 (『송강가사』 성주본)

이 병을 어루만져 낮게 해 줄 사람은 오직 임금 밖에 없으니 이 몸을 혈어 한강물에 띄워서라도 임의 곁으로 가야만하였다.

내 시름 어더두고 느미 우음 불리잇가
내 술잔 어더두고 느미 브레 들니잇가
옥꺄튼 처엄 먹음이야 가?주리 이시라 (『송강가사』 성주본)

그러나 무심한 임금은 어려운 현실의 여건 속에서도 허튼 욕심 부리지 않고 근신하고 있는 나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고, 충절로 변치 않는 옥 같은 일편단심도 끝내 몰라주는 사실이 다만 서운할 따름이었다. 이것은 모두가 심화 된 당쟁의 와중에서 자신에게 가해진 반대당의 모함의 결과였다.

어와 동냥지를 더리호여 버려이다
헐뜨더 기운집의 의논도 한제이고
뭇지위 고즈자들고 헤뜨다가 말러니 (『송강가사』 성주본)

시배들의 모함에 聖意가 흐려져서, 동량재처럼 쓸모 있고 유능한 인제는 버려지고, 소인배들이 득세하여 국론의 분열이 극에 달한 어지러운 정국이 못내 걱정스러워 송강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다. 생각이 이에 미치자 서럽고 안타까운 마음은 절망의 깊이를 더해만 가고, 울음으로도 감당하지 못할 슬픔은 끝내 피를 토하는 소쩍새의 절규로 격화되니 외로운 신하는 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掖垣南畔樹蒼蒼 담으로 둘러쳐진 남쪽 수목은 울창한데
魂夢迢迢上玉堂 꿈 속의 혼은 멀리 옥당으로 올라가네
杜宇一聲山竹裂 소쩍새 울음소리 산 대(竹)를 가르는 듯
孤臣白髮此時長 외로운 신하 백발이 이 밤에 길어지네¹⁰⁾

그러나 현실은 이런 몸부림과 절규에도 아랑곳 없이, 암담하기만 하였다. 이러한 절망감을 송강은 달빛이 미치지 못하는 산골짜기의 어둠에 견주어 표현하였다.

嶺月初生度夜溪 산마루 달빛 아래 시내를 건너갈때
分明沙石各東西 沙石이 환히 보여 동서가 분명터니

9) (偶吟, 續集 卷一)

10) (夜坐聞鶉, 原集 卷一)

清輝不到陰崖裏 그늘진 비탈에는 밝은 빛이 오질 않아
入谷還愁去路迷 골짜기에 들어서니 갈 길이 희미하네¹¹⁾

자신이 관직에 있으면서 받은 성충은 그야말로 전도양양한 의기모양이어서 앞날의 불행 따위는 걱정이 아니었는데 막상 은혜가 끊어진 현실은 어둡기 그지없어 목적의 지향을 상실하고 말았다. 끊어오르는 권력에 대한 집착과 열망으로 현실을 부정하며 대립했던 송강의 의기는 희미한 앞길에 대한 회의로 귀착되었고 그 안에서 이러한 집착이 얼마나 부질없는가에 대한 각성이 생겨나게 되었다.

에서 놀애를 드러 두세번만 붓츠면은
봉니산 데일봉의 고온님 보련마는
흐다가 못흐는 일을 닐러 브습하리 (『송강가사』 성주본)

이 작품이 곧 좌절된 현실 상황에서 권력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스스로 인식한 송강이 현실에 승복하고 체념하는 심리 변화의 일면을 반영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작품에서 본 바와 같이 송강은 강렬한 현실지향적 욕구를 작품화하면서도 고도의 상징적 기법을 사용하여 직설적인 묘사나 표현은 드러나지 않게 하는 뛰어난 작시 능력을 지닌 작가였다. 거기에다가 ‘물(江)’, ‘구름’, ‘소쩍새’, ‘달’, ‘새(놀애)’ 등의 자연을 자신 속으로 끌어들이고 그것을 내적으로 인격화하여 同化(Assimilation) 시키거나,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내부로부터 끌어내어 대상에 비유적으로 投射(Project) 시키는 일종의 독특한 심정 활동인 감정이입의 수법을 자유롭게 구사하였다. 때때로 감정이입의 수사적 기법은 시문학에 있어서 함축미를 배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¹²⁾ 이러한 수사 기법과 鋪陳과 影描의 조화를 통해 송강은 시적 효용의

표출에 앞서는 내면적 정서의 미적 표현에 있어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암담한 현실에 봉착하여 체념하는 면모를 보였던 송강이었지만 그렇다고 절망할 수만은 없었다. 인간에게 있어 지난날의 추억은 혹 그것이 가슴 아픈 기억이라 할지라도 대개는 아름답게 되살아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리하여 송강은 절망 가운데 희망을 건져 올리는 방법으로 과거의 추억 속으로 침잠하기 시작했다.

辛君望 교리적의 내마춤 슈찬으로
上下番 ㅁ초와 근정문 ㅁ기러니
고온님 옥ㅁ튼양지 ㅁ의 암암 ㅁ여라 (『송강가사』 성주본)

관직에 나아가 사대부로서의 의기를 소신껏 펼치며, 청운의 꿈을 다지던 그 시절이 눈 앞에 생생하게 재현된다. 더군다나 송강이 수찬을 제수 받았던 시기(선조 2년, 1567)는 오랜 좌절 끝에 재기의 기회를 마련했던 시기였으며, 율곡과 더불어 호당에 피선됨으로써 학문에도 심취하였던, 앞날의 영달을 다 거머쥔 듯한 호기로운 시기였으니 더욱 더 선명하게 기억된다.

인간적 가치에 대한 인상이 고뇌로 인해 한층 더 높아질 때 성립하는 일종의 숭고함을 悲壯美라 한다면 절망의 심원에서 그로부터의 좌절을 극복하고,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을 꿈에서나마 이루고자 하는 이 염원 자체가 이미 숭고함이자 비장미다. 현실적인 좌절과 이로부터의 시련을 몽상적인 의지로나마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송강의 간절한 염원 속에서 이러한 숭고한 비장의 일단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꿈은 해가 뜨면 스러지는 안개 같아서 꿈속에서 이루었던 그리운 입과의 목 메인 상봉조차 잠깨고 보니 그야말로 일장춘몽이었다. 그리하여

11) (夜行, 續集 卷一)

12) 김갑기, 『송강정철연구』, 이우출판사, 1985, 89쪽.

이제는 더 빌어보고 의지할 데조차 없어진 송강은 미련을 떨쳐버리고,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심정으로 마음의 문에 빗장을 질렀다.

嶺海無消息 산 넘고 바다 건너 소식은 없지만
 風塵有是非 풍진 속 세상에는 시비가 있네
 一生長作客 일생을 길이 나그네가 되고자
 萬事獨關扉 만사를 모른 채 홀로 문을 걸었네¹³⁾

이 작품에는 話者의 음성만 드러나 있을 뿐 청자가 없다. 말하자면 혼자서 푸념하는 獨白(Monologue)의 발화다.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어버린 송강은 이 독백의 발화로 자신의 염원이 머무는 공간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내면세계로 침잠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다름 아닌, 과거의 회상을 통해 인간사 부질없음을 깨우친 후 위안을 찾아 나선 송강이 마련한 나름대로의 자구책이었다.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 복받쳐 오르는 心火를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술보다 좋은 것은 없었다. 그리하여 송강은 술이 가져다주는 위안 속으로 깊이 빠져 들기 시작했다. 물론 송강이 술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시점은 이미 율곡과 벗으로 사귀던 21세 때부터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좌절감이 그를 더욱 더 술에 애착을 갖도록 만들었고 따라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矢意의 심화를 달래는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람은 저마다 술 마시는 이유가 따로 있게 마련이어서, 송강 역시도 변명걸하여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하였다.

내가 술을 즐기는 이유가 넷이 있으니, 불평이 하나요, 흥취가 둘이요, 빈객을 대접하는 것이 셋이며, 그리고 남이 권하는 것을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 또 하나이다.¹⁴⁾

이 네 가지 중에서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송강이 술을 마신 이유는 바로 마음 속의 울분 때문이었을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체념의 탄식이었지만 진정한 속마음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울분으로 가득찼던 송강은 울분과 근심을 털어내고 잊기 위해 한없이 술에의 탐닉으로 빠져들었던 것이다.

송강의 술을 대하는 성향은 다음의 작품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말 그대로 斗酒不辭 그 자체다. 워낙 현실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탓에 양껏 마셔야만 그나마 그러한 시름들을 잊을 수 있었던 것이다.

深夜客無睡 깊은 밤 나그네 잠 못 이루니
 殘年愁易生 쇠잔해진 늙은이 수심도 많아
 當杯莫停手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않으리
 萬事欲無情 만사에 정을 떼고 싶을 뿐이니¹⁵⁾

어떤 이념이나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하는 것을 ‘상징’이라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송강문학에 자리하고 있는 술은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의 극단적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의의 공간에서 마시던 술은 시름과 절망에 대한 애상의 상징이었지만 반대로 득의의 시절에 대해서는 술은 사뭇 호기어린 당당함의 상징으로 등장한다.

북두성 기우려 창희슈 부어내여
 저먹고 날먹여늘 서너잔 거후로니
 화풍이 습습하야 낭익을 추혀드러
 구만리 당공애 저기면 놀리로다
 이술 가져다가 스희에 고로논화
 억만창성을 다 취케 땡근후의
 그제야 고터만나 ㅅ호잔 ㅎ갓고야 (<관동별곡>)

13) (絶句, 原集 卷一)

14) 『국역 송강집』, 원집 권2, (戒酒文)

15) (夜坐遣懷, 原集 卷一)

그야말로 호방함의 극치를 부여주는 표현이다. 오랫동안 관직을 떠나 은거하던 중 승진과 더불어 관직을 제수받게 되니 새로운 의욕이 넘친다. 의기가 양양해진 송강은 스스로를 ‘上界의 眞仙’이라 자부하기에 이르렀다. 이때의 술 속에는 절망의 빛이 전혀 어려있지 않다. 다만 앞으로 펼쳐질 희망이 넘치는 삶만이 술 속에 용해되어 있을 뿐이다.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타고난 천재 시인 송강은 철차탁마의 과정도 없이 “名詩는 醇酒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神興은 술에서 받기 때문이다.”¹⁶⁾ 라는 林語堂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술에 젖어 살면서 ‘반쯤 취하여 잔을 든 채로 입으로는 읊고 손으로는 쓴’¹⁷⁾ 보화로 세상에 전할 만한 작품들을 남겨 놓았다.

이상에서 살펴본바 송강의 표현론적 시세계는 주로 송강이 실의에 빠졌던 시기에 공리적 효용성의 표방을 억제하는 가운데 형성되어왔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한 것은 역시 술이었다. 실의에 찬 시절에 마시던 술은 절망적 애상의 상징이었지만 이 술을 통해 송강은 비로소 현실을 인정하고, 체념을 승화시키는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4. 체념의 승화

송강은 술을 가까이 하며 심화를 달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체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풍류를 즐기는 일이었다. 樂은 禮와 함께 사대부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덕목이었던 바 송강은 풍류적인 삶을 누리면서 ‘成於樂’의 새로운 지향점을 가슴 속에 각인시켰음을 알 수 있다.

엇그제 비준술이 어도록 니건느니
잡거니 밀거니 슬크장 거후로니
막음의 미친시름 저그나 흐리느다
거문고 시웁언저 風入松 이야고야
손인동 주인인동 다 니져버려세라 ((성산별곡))

마음에 맺힌 시름을 술로써 후련하게 풀어내고 정화된 성정의 바탕 위에 거문고 줄을 타며 풍류적 낭만을 덧칠하는 송강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쾌락은 영혼이 일정한 운동을 일으켰다가 돌연히 평상상태로 안정되는 데 따르는 지각¹⁸⁾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적처럼 송강은 극도의 좌절과 그에 따르는 정신적 혼동의 비극 속에서 평정을 되찾는 일종의 시적 카타르시스를 음악과 풍류로 실현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 송강의 체념은 자조적 관념의 틀을 깨고 풍부한 시적 감수성으로 되살아나게 되었다.

거문고 大絃을 티니 막음이 다 녹더니
子絃의 絃調올라 막막도 쇠온말이
섭기는 전혀 아니호디 뇌별 엇디호리 (『송강가사』 下)

무릇 풍류라 함은 사대부들이면 누군가 즐기던 취향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송강만 그것을 즐겼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음악에 대한 송강의 조예만큼은 자못 각별한 것이었다. 武絃, 大絃, 中絃, 子絃 등으로 구분되는 거문고 각 현이 발하는 독특한 음색의 차이와 음의 분위기를 즐기며, 막막도(調)의 급하고 강한¹⁹⁾ 자진모리장단의 경쾌함 속에 젖어들어 마음의 설움을 삭히는 송강의 유유자적한 모습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은 송강은 음악에 대한 깊은 조예를 바탕으로 리듬감이 탁월하고

16) 임어당, 안동민 역, 『생활의 발견』, 문예출판사, 1984, 172쪽.

17) 『국역 송강집』, 별집 권 6, 〈傳〉

18) 홍문표, 앞의 책, 31쪽.

19) 『국역 악학체법』, 민족문화추진회, 1989, 72쪽.

우리의 호흡에 일치하는 시조, 가사 작품을 詩化하였던 것이다.

현실에 대한 집착 때문에 조갈중에 시달리던 송강은 감미로운 음악의 선율로 목마름을 해소하고 풍류를 즐기는 삶 속으로 깊이 침잠하게 된다.

小築臨溪上 시냇가에 조그마한 초당을 짓고
 幽懷寄竹林 그윽한 회포일랑 竹林에 붙였네
 淸風夜半起 맑은 바람 한밤에 살며시 일자
 草屋奏鳴琴 집안 가득 거문고 소리 그윽하구나.²⁰⁾

여기에는 송강의 애절한 열망도, 임을 향한 그리움도 전혀 배어있지 않은 순수한 시의 세계가 청아한 절조로 구현되어 있다. 한껏 음악적 분위기와 풍류에 심취한 송강에게는 대 숲에 부는 바람이 일컫낸 소리조차 거문고의 울림으로 느껴졌다. 이제껏 잊은채 제쳐두었던 자연, 그 자연과의 조화가 서서히 송강의 의식세계 속에서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萬竹鳴寒雨 만 개의 대나무 찬 비에 부슬거리니
 迢迢江漢心 아득아득 江漢의 심정이로세
 幽人自多事 숨은 사람 저절로 일이 많아서
 中夜獨橫琴 밤중에 홀로 거문고를 타노라²¹⁾

이렇게 송강은 음악의 선율이 자연과 이루어 내는 묘한 조화의 분위기 속에서 현실의 좌절감과 끓어오르는 울분의 심화를 달래가며 서서히 자연 속으로 몰입하여 자신도 자연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그 안에서 새로운 위안을 찾자 하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프랑스 상징파의 대표적 시인인 랭보(A. Rimbaud)는 시인을 가리켜 시

祭나 예언자 같이 현실 세계를 뛰어넘어 피안의 세계에 숨겨진 본질을 투시하는 자라 규정하고 랭보를 위시한 이들 상징파의 시인들은 초월성의 세계를 표현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표현의 기법에 있어서는 음악성을 매우 중시하는 하나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런 기준에 입각해 보면 송강은 근대의 상징파들이 보여준 특성을 여지없이 발휘한 작가라 할 수 있다. 앞서 본바와 같이 송강은 풍류에 침잠하는 여유로운 모습으로 소외된 현실에서 나름대로 피안의 세계를 마련하는 초월성을 보여주었고, 내용뿐 아니라 표현에 있어서도 압축된 언어로 자연스럽게 호흡과 일치되는 율동미를 잘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섭리의 조화는 인간생명의 잉태로부터 이어져 인간 삶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기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궤적은 결코 자연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자연은 단순한 공간적 의미만으로 인식될 때보다는 삶의 여정 속에서 부딪히며 느끼는 자연으로 바뀔 때 비로소 문학적 표현대상으로서의 가치를 부여받게 된다. 송강문학의 특징은 현실의 超脫이라는 의미의 개성적 자연관을 가지고 있었다.²²⁾

국문학에 있어서 자연이 예술적 전환을 거쳐 서정적 묘사의 측면으로까지 발전한 것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확인된다. 조운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국문학의 최고 유산인 향가에 있어서의 자연은 아직 서경이라기보다는 사실을 묘사한 서사에 지나지 못하며 고려시에서는 자연애가 다소 진보하여 자연이 단순히 무감각한 물건이 아닌 존재의 의의를 가지고 특히 경기체가에서의 자연은 일층 더 객관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역시 고려 문학에 있어서의 자연애는 叙景而已지 자연 중에 감각되는 정취라든가 자연 중에 끌려 들어가는 정서란 것은 아직 발견할 수 없다.²³⁾

20) (示李敬賓二首中 第二首, 原集 卷一)

21) (卽事, 原集 卷一)

22) 김진욱 『송강절절문학의 재인식』, 역락, 2004, 341쪽.

23) 조운제, 『국문학 개설』, 탐구당, 1986, 418쪽.

조운제는 이에 더하여 조선조 시가문학에 나타나기 시작한 자연의 형성 양상을 江湖歌道라고 하면서, 강호가도는 당쟁이 치열했던 시대의 明哲保身과 仕致客의 閑適에서 형성 되었으며, 강호가도에 나타난 자연의 양상은 一般美라고 규정하였다.²⁴⁾

자연에의 동화는 자연의 오묘한 진리를 마음으로 체득하여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자연에다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끝내는 자연과 일체가 되어 버린 상태를 뜻한다.²⁵⁾ 일정한 거리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던 자연에 한걸음 더 다가가 無爲自然으로서의 자연에 몰입하여 物我一體를 이루는 상태, 이것이 곧 자연과의 동화인 것이다.

이 관점에서는 자연을 인공이 가해지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상태나 사물로 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 있는 그대로 손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 속에서 때묻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

새원 원쥬 되어 되롱삿갓 메오이고
 細雨斜風의 一竿竹 빗기드러
 흥노화 빅빈쥬더의 오명가명 흥노라 (『송강가사』 下)

歌起蓼花灣 여뀌꽃 핀 물굽이에 노랫소리 들려오고
 江童理漁罩 강마을 아이들은 그물을 손질하네
 幽人初罷眠 숙세를 등진 사람 첫잠을 깨어보니
 落月隨歸棹 지는 달은 돌아오는 배를 따르네²⁶⁾

세상을 향한 부질없는 욕망과 공명을 버리고 자연에 묻혀 유유자적하는 여유로운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듯 스스로 風月主人이 되어 安貧樂道를 실현할 수 있었던 힘은,

쇠나기 한줄기미 년넉패 솟드로개
 물무든 흔적은 전혀 몰라 보리로다
 내막음 더그탁야 덜물줄을 모르고져 (『송강가사』 下)

에서 볼 수 있듯, 소낙비에 젖지 않는 연잎같이 세상의 온갖 유희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들에 현혹되지 않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배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실천의 고행이 있음으로 해서 드디어 송강은 자연과 동화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자연과의 동화는 객관적인 세계를 자신의 내적인 세계로 끌어들여 自我化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結根牆角苦生涯 담모퉁이에 뿌리내린 괴로운 생애
 枳棘爲隣草作家 탕자나무에 잡초까지 얽혔구나
 莫恨年來少相識 찾는이 없음을 서러워 말라
 暗香枝上月光多 향내 어린 꽃가지엔 달빛이 현란커늘²⁷⁾

세상에 대한 미련을 떨칠 수 없어 그렇게도 다가가기 저어하던 자연이었는데 막상 그 속으로의 침잠을 시작하자 자연 만으로도 마음의 위로로 삼을 수 있고, 미물인 갈매기조차 이제는 더불어 정을 나누는 벗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세상을 향한 온갖 욕심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이에 대치할 만한 위안의 요소들을 찾고자 하는 의지의 바탕 위에서 송강은 드디어 괴롭고 힘이 드는 현실이긴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하늘의 달과 꽃의 향기, 그리고 백구 등을 벗 삼아 자연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가는 자연 동화의 경지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자연몰입에의 의지 구현이 한갓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 자연 속에서 구가한 吟風弄月이나 物我一體 경지의 예찬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

24) 조운제, 위의 책, 400쪽.

25) 정대립, 『한국고전문학비평의 이해』, 태학사, 1991, 396쪽.

26) (前江漁唱, 原集 卷一)

27) (詠牆角梅, 拾遺 卷六)

다할지라도 그것은 삶의 어느 순간 현실의 좌절과 고통으로 병들고 지친 송강이 추구했던 진실의 한 단면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송강에게 있어서 ‘會者定離 生者必滅’하는 인생사의 평범한 원칙은 모든 인간사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격의 없이 사귀어 오던 주위의 많은 인사들과의 이별이 늘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다. 자신의 의지를 꺾고 주변과 쉽사리 화합하지 못하는 강직한 성품을 견지했던 송강이지만 풍부한 감성을 바탕으로 인간미와 서정성이 넘치는 작품을 다수 창작했음에서도 알 수 있듯 그는 마음의 한 구석에 다정다감한 정감의 면모도 함께 지니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리하여 송강은 일상의 생활에서 다반사로 겪게 되는 이별의 정한을 잔잔한 애상으로 그려놓음으로써 표현론적 시세계의 또 다른 특징을 형성하고 있다.

岸樹依依立 언덕 위 나무들은 유유히 섰고
江波渺渺平 강 물결은 아득아득 번지러워라
平生素輕別 평생에 이별을 경홀히 여겼더니
於此轉多情 이 날에는 도리어 정이 많구나²⁸⁾

정녕 사람과 헤어지는 일은 감래하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송강의 이러한 감정을 다음의 작품에도 여실히 드러나 있다.

차라리 눈이나 계속 내려 벗님의 발을 묶어서 떠나지 못하게 되기를 간절히 염원했는데 눈은 이미 그치고 눈길을 치닫는 말발굽 소리만 오히려 마음을 조금하게 만들어 송강은 또다시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 술잔을 기울였다.

不是耽杯酒 진정 잔술이 탐나서가 아니라
應緣愴別情 이별의 정이 슬프기 때문일세

28) (將適鷗浦丹中有作, 原集 卷一)

明朝送君後 내일 아침 그대를 보내고 나면
風雨滿孤城 비바람이 외로운 성에 가득하리라²⁹⁾

지나칠 정도로 술을 좋아했던 송강이지만 이별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만 큼은 석별의 정을 나누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이라고 송강은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이별의 정은 술로도 다스릴 수 없는 것이기에 이별 뒤에는 늘 허전함이 폭풍우처럼 송강의 마음을 휩쓸고 지나가곤 했다. 이별로 인한 상실의 고통은 그 어떤 시련보다도 가슴 깊이 각인되는 슬픔이었다. 그리하여 늘 송강은 이별의 슬픔이 없는 세계를 염원했다.

길우희 두 돌부터 벗고 굶고 마조서서
브람비 눈서리룰 맛도록 마졸만정
인간에 니별을 모르니 그를 불워호노라 (『송강가사』下)

일상의 생활 가운데 흔히 접할 수 있는 이별의 상황에서도 한없는 애상으로 느꼈던 송강은 주변 인물의 죽음에 직면하여서는 더욱 커다란 상실의 슬픔으로 빠져 들었다. 그리하여 그의 작품 중에는 이를 애도하는 挽詩가 자주 눈에 띈다.

笑葉出水看天然 물에 솟은 연꽃인가 불수록 천연해
間氣難逢數百年 하늘이 이 나라에 끊어진 학문 전하려고
欲天我東傳純學 만나기 어려운 수백년의 기운일세
人生之子紹前賢 이 사람을 낳아서 前賢을 이어 받았음
心中剩有環中妙 마음 속엔 공허한 묘리가 들어있고
目下都無力下全 눈 아래는 어려운 일 전혀 없네
何處得來何處去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건가
比時相別幾時旋 이 때에 이별하면 어느 때 돌아오랴³⁰⁾

29) (客夜惜別 二首 中 第一首, 續集 卷一)

30) (挽栗谷 三首 中 第一首, 續集 卷一)

수학기로부터 각별한 우정을 나누어 오며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진정한 동반자의 길을 함께 걸어왔던 율곡의 죽음을 애도한 이 작품에서 율곡에 대한 송강의 절절한 추모의 정을 감지할 수 있다.

율곡이 생전에 이루어 놓은 학문적 성과를 찬양하고 다시 만날 수 없는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율곡에 대한 만시는 칠언의 율시 三首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율곡과의 정분이 그만큼 두터웠던 것에서 기인한 결과라 할 수 있겠지만 이 외에도 대부분의 만시는 律時 혹은 장편의 古時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단순한 이별의 정한을 읊은 대다수의 작품이 그 상황에 직면하여 즉흥적으로 지어진 느낌을 주는 絶句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외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송강은 당시 사대부들의 보편적 문학관으로 자리잡고 있던 효용성을 강조하는 재도적 문학관을 수용하면서도 자신의 내면세계를 뛰어난 文才와 다양한 표현기법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표현해 낸 시인이었다.

5. 결어

본 연구는 송강 문학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나 가치를 새롭게 밝히는 것보다 이질적인 문학관과 정서의 바탕 위에서 창작된 것처럼 인식되어온 송강의 국문 시가와 한시는 결국 한 작가의 일원적 정서의 산물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동일한 문학관의 기반위에 형성된 것임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송강의 삶의 태도는 그의 문학 속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나름대로의 문화적 특성으로 드러난다. 송강의 문화적 특성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면은 역시 당시 사대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재도적 효용론이다. 이는 奉儒 守官의 생활 태도를 견지했던 사대부들의 기본적 사고의 반영인 동시에 현

실적 이상을 실천하기 위한 필수의 가치 기준이었다. 재도적 효용론의 반영으로 창작된 송강의 작품들은 자신이 처해있는 현실의 여건에 따라 득의의 시절에는 사회를 개혁하고 화민성속하려는 의욕적 성정을 담고 있지만 반대로 이상과 포부의 실현이 좌절된 실의의 시기에는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원상으로 회귀하려는 강렬한 집념이 투영되어 있다.

이렇게 뚜렷한 목적성을 내포 하고 있는 작품의 창작을 통해 철저한 효용론의 문학관을 견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송강은 천부적인 감각과 뛰어난 文才로 그 목적성에 의해서 침해당하지 않는 예술성을 확보함으로써 내면세계의 표현에 성공을 거둔 작품들을 창작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예술적 성공은 공리적 효용성에 근거한 목적성을 탈피하고 내면의 세계로 침잠하는 과정을 다지기 까지 송강 내면의 상심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고통에서 대립과 갈등의 양상을 보인다. 이 갈등 해소의 제기를 마련해 주는 소재로 송강의 문학에는 술이 자주 등장한다. 술의 탐닉에 젖어든 송강은 풍류적 삶을 통해 다시 자연과의 친화를 노래하지만 이는 송강 내심과는 거리가 먼 공허한 외침에 불과 한 것이었다.

송강은 이러한 다양한 심리의 변화를 시조 · 가사 · 한시라는 서로 다른 시형식과 문자를 이용해 두루 표현하였다. 그러나 마음에 지녔던 정서는 결국 일원적인 것이기에 송강의 문학은 시형식과 표기 양식과는 상관없이 내면적 동질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송강은 날로 격렬해지는 당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수차례 그 화를 입고 관직에서 물러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감래하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그리하여 송강은 소외된 현실에 순응하지 못하고 강하게 대립하는 자세를 보이며 화려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가운데 술과 풍류로서 좌절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그러나 끝내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봉착한 송강은 체념하며 현실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체념의 과정 속에서 송강은

때로는 자신의 본심과 거리가 있었지만 자연과의 친화를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외된 현실의 좌절감을 그리움과 외로움의 서정으로 그려내어 공리적 효율성이 배제된 표현적 문화관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 송강은 다양한 시 형식을 통해 표현론적 정감의 세계와 효용론적 이념의 세계를 포진과 영묘의 조화로 완벽하게 이루어낸 동시에 당시 사대 부들이 천시하던 국문을 사용하여서도 탁월한 어휘 구사력과 세련된 수사 기교로 한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격상시킴으로써 국문시가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다.

■ 참고문헌

『국역 악학계법』, 민족문화추진회,

松江歌辭, 通文館

松江全集,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松江集, 松江遺跡保存會 國譯本

東文選

김갑기, 『송강정철연구』, 이우출판사, 1985.

김성기, 『한국의 전통문화』, 월인, 2001.

김진욱, 『송강정철문학의 재인식』, 역락, 2004.

유약우, 이장우 역, 『중국시학』, 동화출판공사, 1984.

임어당, 안동민 역, 『생활의 발견』, 문예출판사, 1984.

정대림, 『한국고전문학비평의 이해』, 태학사, 1991.

조윤제, 『국문학 개설』, 탐구당, 1986.

홍문표, 『현대시학』, 형설출판사, 1995.

R. Wellek and A. Warren, 김병철 역, 『문학의 이론』, 을유문화사, 1998.

〈Abstract〉

A Study on the Song Kang Chong Chol's Poetry

Park, Bae-sik

This study aims at not newly discovering characters or values in Song Kang Chong Chol's literature,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if it was created on the foundation of different literature view and sentiment, but finding out the homogeneity of inherent essence of his poetry and chinese poem(漢詩) by noticing that his works were ultimately, outcomes of a unitary sentiment of writers.

The most noticeable aspect of Song Kang's literary characteristics is also the pragmatic theory that was commonly found out in sadaepu(사대부: a man of noble birth) at that time. This was the reflection of basic thoughts showed in Sadaepu who had respect for confucianism and bureaucratism, and was essential to the standard of value to realize realistic ideal.

As a material offering the settlement of trouble, it was a liquor that ofthen appeared in his works. He indulged in liquor advocated intimacy with nature through refined life, but such an attitude was removed from hismind was only empty cry.

Song Kang is the very poet that perfectly harmonized the ideological world on pragmatic theory with the sentimental world on the theory of exprrsion regardless of form and transcription on

the basis of a spirit of literature.

Key words : complication, resignation, sublimation